

겨자씨.

2022
WINTER
VOL.41

08
인터뷰 광승현 위임목사
다음 세대의 새날이 열리는
한해 되길

18
포커스 I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마상욱

20
포커스 II
메타버스 교회사역,
어떻게 준비할까?
김현철

33
2022 특별기획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③
문준경
오성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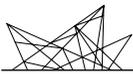
42
함께 읽고 싶은 글
아버지의 헌금 봉투
이자경

46
HOT ISSUE
한국기독교영화제 대상
<교멜레온>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미디어팀

02
PROLOGUE
첫마음
정채봉

06
사뉘기에 심은 나무
0도의 사랑
김구슬





첫 마음

|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나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정채봉

- 시인, 동화작가
- 산문집 『첫 마음』, 시집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내 일생이었지』
- 소천아동문학상, 한국잡지언론문화상 수상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지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뺨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겨자씨.

C.O.N.T.E.N.T.S

- 02 PROLOGUE
첫 마음
- 04 VISON 22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5대 비전
- 05 믿음소망사랑
22년 3대 키워드
#가정예배 #다음 세대 #리더십
-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 김구술
0도의 사랑
- 07 2022 WINTER Special Theme
성령이여, 새날을 열어 주소서
- 08 테마 인터뷰 | 곽승현 위임목사
다음 세대의 새날이 열리는 한 해 되길
- 13 2020 & 2021
거룩한빛광성교회 사역
- 14 선교지 밀알 | 우간다 박석출 선교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음 세대 리더 세우기
- 16 희망나눔 | 방역 봉사로 교회 지키는
김선일 남선교회장
예배 참석자 모두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 18 포커스 I | 마상욱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 20 포커스 II | 김현철
메타버스 교회 사역, 어떻게 준비할까?
- 24 ON LOVE |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를 아십니까?
- 26 ON LOVE
마더와이즈 '회복'을 소개합니다
- 28 1월의 향기
거룩한 밥상!
- 30 아름다운 교회로의 여행 |
경기도 안산시 화정교회
117년간 자리를 지킨 뿌리 깊은 교회
- 32 성경 속 인물 초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 33 2022 특별기획 |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③
문준경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들(성도들)은 살려주소!"
- 38 온라인오프라인
교회학교의 끊임없는 예배에 대한 열정
- 42 함께 읽고 싶은 글
아버지의 현금 봉투
- 44 찬송가 산책 |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 45 청년광장
- 46 HOT ISSUE
한국기독교영화제 대상 <교멜레온>
- 50 WE
온라인 시대 청년들의 신앙
- 52 내 삶의 멘토
제 삶의 멘토는 조춘동 집사님입니다
- 53 문화산책
- 54 COVER STORY
달빛
- 55 茶 이야기
열정의 차, 레드비트
- 56 수필
살아 있는 날의 기쁨
- 58 영화
선들러 리스트
- 60 여행, 스토리를 담다! 사이판
느리게 넘실대는 서태평양에서
'산티아고의 바다'를 생각하다
- 62 BOOK AND BOOK
- 63 하나님 앞에서
- 64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 65 크로스로드
- 66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67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소개합니다



08



14



18



38



46



16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양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모델

북한선교
전초기지

세계선교
중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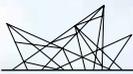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2022년 거룩한빛광성교회 # 3대 키워드

가정예배 # 다음세대 # 리더십



전교인 1·10·10 가정예배 드리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교회 리더십을 강화는 2022년!



0도의 사랑

글 · 김구슬(시인, 영문학자)



0도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세계이다

그림자 없는 오솔길을 걸으며
우리는 가끔 허공을 응시한다
머리 위에는 소리 없는 것털들이
출구 없는 소실점을 향하고
발밑을 내려다보며 걷던
가슴이 울고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없는 세계의 가능성을
읽을 수 없어서 일 것이다
꽃 한 송이 지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운 것들은
모두 세상 저편에 있다

시커먼 파도를 타고
출항을 예고하는 뱃고동 소리가
사라지는 수평선에 파랑을 일으키며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손짓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족을 느끼며 살아간다.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적 사랑을 희망한다. 험난한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운 것들은 모두 세상 저편에 있고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의 이편에서 그것을 그리워한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다.

절대란 어떤 분열이나 갈등을 넘어선 조화와 합일의 세계이다. 상대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한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꿈에 불과할 것이다.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절대적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 것이 인간의 궁극적 지향이다. 꽃 한 송이 지지 않는 세계로 상징되는 '영(0)'의 세계, 이것은 무(無)가 아니라 영원이요 불멸이다. 절대적 사랑을 향한 소망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영원이 손짓하는 세계를 향한 느린 희망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야 할 이유이다.



2022 | WINTER SPECIAL THEME

일러스트 장예지

성령이여, 새날을 열어 주소서





곽승현 위임목사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1·10·10 가정예배’ 접목 다음 세대의 새날이 열리는 한 해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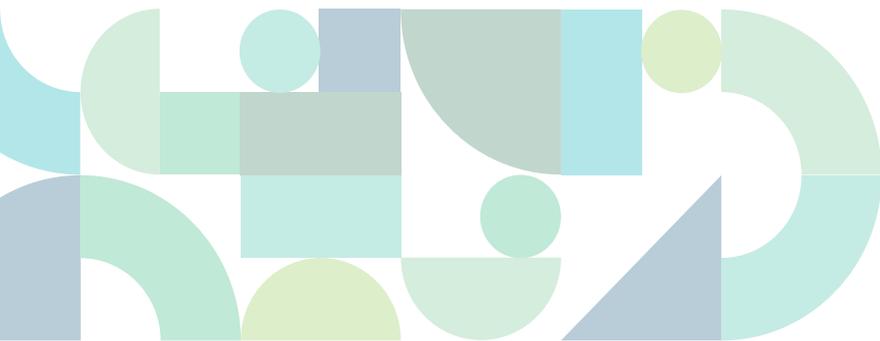
취재 · 전영의 / 인터뷰 사진 · 연광흠

지난 2년 인류는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 하에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인류의 삶의 무대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다시 메타버스로! 메타버스를 일러 ‘인류의 두 번째 지구’, ‘메타지구’라고도 한다. 우리의 삶 속으로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시대를 기록한빛광성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역은 무엇인지 곽승현 위임목사에게 듣는다.



2021년 기록한빛광성교회는?

- Q 2021년은 기록한빛광성교회 사역에 있어 어떤 한 해였나요?
- 팬데믹 속에서 교회 모든 사역이 멈춰진 듯한 답답한 순간도 있었지만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로 정하고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사역을 통해 한 뼘 더 자라났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 부임 때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강조해 온 관승현 위임목사는 무엇보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인의 자녀를 잘 길러 내야 할 사명을 느낀다고 한다

❶ 2021년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이 있었습니까?

● '1·10·10 가정예배', '마더와이즈', '제자훈련' 등의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젊은가정부' 부서가 새로 신설돼 '3040 리더십 세우기' 사역이 닦을 올렸습니다.

❷ 올해 '조이풀장년부'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조이풀장년부'는 어떤 부서인가요?

● '조이풀장년부'는 우리 교회 3040 소그룹 공동체로, 결혼해서 45세까지

의 교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혼가정부' 부서와 지난해 신설된 '젊은가정부' 부서를 '조이풀장년부'로 통합해 3040 세대가 교회 안에서 에너지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청년이 결혼하면 '조이풀장년부'로, 45세 이후에는 '장년부'로 이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끄는 우리 교회의 성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로 마련된 플로잉데이 현금 중 1천만 원을 파주시 코로나 지원금으로 전달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신을 가장 잘 담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 2021년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두 차례에 걸쳐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플로잉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그 결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는 2020년 부활절 현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부활절 순수 현금 약 7천만 원에 교회 예산 3천만 원을 합쳐 1억 원을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고, 고양 시청과 파주 시청에 각각 1천만 원씩 불우이웃 성금을 보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2021년에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두 차례에 걸쳐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플로잉데이'를 진행했는데 2020년과 달랐던 점은 성도가 직접 현금을 보내고 싶은 대상자 또는 단체를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약 1억 3천만 원, 추수감사절에는 약 1억 8천만 원의 현금(순수 현금 약 1억 6천만 원, 교회 예산 2천만 원 투입)을 성도들과 교회가 각각 지정한 대상자 및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 2022년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플로잉데이 사역이 진행됩니까?

● 물론입니다. 이것만큼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신을 잘 담고 있는 사역이 있을까요.

정성진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사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1·10·10 가정예배가 접목됩니다.

지난해 연말 성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저금통'을 나눠드렸습니다.

가정예배 때 사용하는 현금통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저금통에 모인 현금 역시 '2022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다시 메타버스로

●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한 해 거룩한빛광성교회도 온라인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라는 공간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예배를 진행하면서 체감하신 변화가 있습니까?

● 예배당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고 현장에 성도들이 없다는 것이 체감하는 가장 충격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2, 3부 예배 때는 본당을 비롯하여 지저스아트홀, 그레이스홀, 비전센터의 자리가 부족할 만큼 성도들이 교회 공간에 가득했고, 곳곳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는데 2년 가까이 비어 있는 교회 공간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 교회 공간의 기능과 더불어 목회 방식에 있어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적 방식에서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서도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간의 의미가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만남 또한 대면보다는 비대면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

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 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만을 고집한다면 도태되겠지만 그 장점은 살리면서 새로운 기술을 사역에 적극 활용하여 변화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히 균형을 맞출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 **인류의 삶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다시 메타버스로 이동 중입니다. VR을 설치해 교인들이 언제든 가상 공간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교회도 있고,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등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메타버스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우리 교회는 이미 메타버스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스포트 대회'도 메타버스 사역 중 하나였지요.

『메타버스와 교회학교』 저자인 김현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두 차례 초청해 교회 사역에 메타버스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배우고 우리 교회의 환경에 맞는 메타버스 사역들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교육 총괄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곧 교회학교와 관련된 메타버스 사역들도 구체화 될 것입니다.

●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많은 한국 교회가 2021년 예산을 채우지 못했는데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 지난해 교회 예산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20~30% 정도 덜 채워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많았는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예산의 목표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 이유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때 첫 번째 요인은 교회가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사역을 펼쳤고, 교구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집 문 앞에서 기도하는 두드림 심방과 전화 심방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성도들과 소통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신앙심을 일으켰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인의 자녀를 잘 양육할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소망

● **신년 교회 표어를 '성령이여, 새날을 열어 주소서'라고 정하셨습니다. 2022년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새날'은 어떤 날인가요?**

2022년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새날'은 어떤 날인가요?

● '새날'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2년과는 다른 새날에 대한 기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1기 거룩한빛광성교회가 광성드림학교, 해피월드재단 등 학교와 복지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그것을 이루어 냈다면 2기 광성교회는 3040 세대가 주가 되는 젊은 리더십을 세우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자녀들을 잘 길러 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없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한 양육의 장 비전센터가 빨리 건립되고 다음 세대의 새날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 **2022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2기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주력하는 3가지는 '가정예배, '다음 세대, '교회 리더십 강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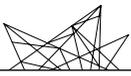
전 교인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가 신앙의 대를 잘 잇게 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 곳곳에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2021년 수능 전,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과 랜선 만남을 통해 용기와 힘을 주고 기도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광성현 위임목사



☞ 팬데믹속에서 대면이 어려워지자 광성현 위임목사는 성도들의 집 문앞에서 기도하는 두드림 심방을 하기도 했다



다. 이 3가지 사역을 통해 거룩한빛광성교회가 또 한 뼘 더 자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2022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견뎌 주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목회자가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교회로 복귀하는 교인은 70%에 불과하고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30%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예배를 드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라인 사역도 활발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목표와 5대 비전을 잘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랜선바자회 수익금을 비전센터 건립 헌금으로 써달라며 박승현 위임목사를 찾아온 어린이영어예배부와 함께

☞ 2021년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시무장로 1반, 장로 1반, 권사 0반, 안수집사 5반, 총 103명이 시작하여 98명이 제자훈련 과정을 수료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전진한 거룩한빛광성교회 2020 & 2021

2020년 주요 사역

상반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일 원텐텐 가정예배(2월26일) - 원텐텐 교구별 특별 가정예배 - 원텐텐 특별 화상 심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텐텐 세이레 가을특집 - 온라인 여름특강(이열치열) - 온라인 성경대학 (바이블하이킹, 생활신앙, 이단옆차기, 교리 특강 등) - 1·1·1 전교인 특별기도 운동 - 온라인 광성 홈 트레이닝(온 성도 건강 챌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의 크리스마스 행복키트 나눔 - 목회비전 컨설팅 - 온라인 오색가을 찬양제 - 온라인 사랑의 홈쇼핑 - 온라인 가족전도 축제 - 성탄 사랑의 선물 나눔(블레싱백) -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2021년 주요 사역

상반기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 신천지 대처 특별 금요기도회 - 창립 24주년 기념주일 선물 증정(가정예배 뿔, 가정예배 보) - 원텐텐 가정예배 - 코람데오 스튜디오 오픈 - 새학기 성전 뜰 기도회 - 사순절 삼겹줄 기도 운동 - 3월 온라인 제자훈련 - 온라인 목장모임 - 온라인 성경대학 - 두드림 심방 - 플로잉데이 코로나 지원금 전달(고양·파주 시청) - 드라이브 스루 어린이 주일 - 온라인 섬김사관학교 - 새꿈터 어린이 보호 차량 구입 - 6월 상반기 교회학교 제자훈련 수료식 - 통일선교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 좋은학교만들기 팀 장학금 전달 - 군 선교 마스크 5만 장 후원 - 열린당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 구치소 마스크 전달 -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 - 부모님과 환우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 - 세계 선교 주간 빛가득 금요기도회 - 가정예배 온라인 페스티벌 - E 스포츠 대회 - 온라인 제자훈련 2학기 - 사랑의 바자회(드라이브 스루) - 추계 말씀 사경회 - 추수감사주일 - 종교개혁주일 - 다니엘 기도회 - 장로, 집사, 권사 임직예배 - 수능 온종일 기도회 - 1기 제자훈련 수료식 - 성탄 트리 점등식 - 리더십 특별 헌신의 밤 - 온 가족 성탄예배 & 성탄 칸타타 - 사랑의 쌀 나누기

박석출·홍선미 선교사의 우간다 선교 이야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음 세대 리더 세우기

글/사진 · 박석출 선교사



☞ 소웨섬교회 화장실과 초등학교 건축 사업

기도가 절실한 우간다

적도가 지나가는 우간다에는 거대한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습지도 참 많다. 그래서 온갖 병균들의 천국이다. 말라리아, 황열병, 장티푸스, 크립콩 고출혈열, 그리고 에볼라까지 경계해야 하는 곳이다. 실제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일어난다. 내 경우에는 빅토리아 호수 속에 사는 빌 하지야라는 아메바가 피부를 뚫고 피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1980년대에는 에이즈 환자가 전 국민의 60%에 달했다. 동성애 금지에 노력을 기울여 1991년도에는 에이즈 감염률이 41%로 낮아졌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동안 에이즈 환자들의 죽음으로 수천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고, 현재는 2백만 명 정도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2014년 2월에는 반동성애 법을 통과시켰고,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와 세계은행은 원조를 중단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와 치안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며칠 전에는 IS와 연결된 콩고 반군의 자살 폭탄 테러가 네 번이나 발생하여 상당히 불안하다.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집중

2008년 2월부터 3년 동안 콩고민주공화국 선교사로서 킨샤시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직분을 감당하고, 장애인 60기정과 고아들을 섬겼다. 3년간 아프리카 선교의 핵심 전략은 서북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해 아프리카 교회를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서북아프리카 모슬렘 22개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 리더들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결심이 서고, 우리 가족은 2010년 12월 우간다에 도착했다.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 집중하고자 모든민족신학교(ANTS: All Nations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강의와 설교 사역을 해 왔다. 2011년 9월부터는 캄팔리목회자훈련학교를 설립하여 목회자 재교육에 온 힘을 기울여 지금까지 약 300여 명을 훈련시켰다(우간다의 목회자 중 70% 이상이 신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콩고난민교회와 남수단난민교회 청년들은 전폭적으로 후원하면서까지 훈련시켰다.

그런데 '제1회 캄팔리목회자훈련학교'를 시작하기 며칠 전, 이들이 넘어져서 오른쪽 팔이 완전히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똑같은 시기에 집에

☑ 제6회 캄팔라목회자훈련학교 개강예배(2019. 02)



도둑이 들어서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모든 귀중품을 도난당하기도 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보다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해 왔다. 주님과와의 관계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일이 선교의 핵심이기에 더욱 그렇게 해 왔다.

한 민족보다 강한 한 사람의 기도

주님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하셨다. 사람들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장군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셨다.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것이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선교의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들을 주목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 선교사(중보기도를 통해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를 주목해서 보신다. 기도가 선교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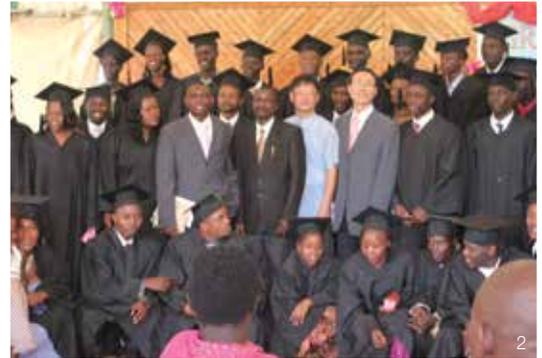
세계 선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기도이다. 세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 선교사(기도 후원자)이다. 오늘도 주님은 세계를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눈물을 아끼지 않는 기도의 용사, 기도 선교사를 찾고 계신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선교의 승패는 후원 교회의 기도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선교 사역의 실패는 곧 후원 교회의 기도의 실패이다. 선교 사역의 위험은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열심이 기도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것이다. 선교 사역의 위험은 전방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방은 기도 없이 재정만 보내는 것이다. 이는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로 전략해 버리고 능력은 없이 모양만 가지는 위험이다. 선교사들의 열심보다 교회의 기도가 더 앞서야 한다. 선교사들의 헌신보다 교회의 기도가 더 깊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추수의 열매를 맺는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 주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1. 남수단제자훈련학교 리더 양육
2. 제1회 캄팔라목회자훈련학교 졸업식(2012)
3. 2019 가을, 모든민족신학교 장학생들과 함께

☑ 제1회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치료학교





방역 봉사로 교회 지키는 김선일 남선교회장

예배 참석자 모두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글 · 김용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빠르고 빈틈없이 방역을 잘하는 것이 제 사역입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맞춰 출입구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일 69년 남선교회장은 “체온을 재고 소독포를 나눠 주고, 주일이면 비싼 시간을 보내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역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발 빠르게 교회 내에 코

☞ 코로나19방역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도입했으나 예배 시간에 인원이 집중되며 오류가 잦아 봉사자들이 직접 손 소독제와 주보를 나눠 주는 현재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로나 대응팀을 구성해 온라인예배와 교회 방역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

평상시 방역은 외부 방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주일에 1회 정기적인 교회 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일예배 방역은 온전히 교인들의 봉사를 바탕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성도들이 주축이 되는 방역팀은 교회의 주요 출입구를 집중해서 방역한다. 교회 1층 로비의 오른쪽 출입구는 남선교회연합회와 안수집사회, 왼쪽 출입구는 여전도회연합회와 권사회가 각각 방역을 맡고 있다.



1. 전면 금지됐던 대면 예배가 조금씩 풀리며 좌석 기준 10~20%씩 교회 출입이 가능해져 주보에 숫자를 표시해 출석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2. 방역팀 봉사자들이 팀을 이뤄 성도들이 많이 다니는 계단 등 교회 내의 곳곳을 소독하고 있다
3. 교회 출입이 좌석 기준 50%까지 늘어나면서 예배에 참석 인원이 많아져자비접촉 체온계를 설치해 단시간에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4. 신속하게 발열 체크와 소독이 이뤄지도록 전신소독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5. 목회자와 봉사자로 구성된 방역팀이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의 교적을 일일이 확인하며 교회 출입을 관리했다
6. 봉사자들이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빠져나간 사이에 교회 내부 구성구석을 일일이 방역하고 있다

예배 시간대별로 역할을 배분해 1부 예배는 교역자, 2부와 3부 예배는 남 선교회연합회와 안수집사회, 여전도회연합회와 권사회가 각각 담당한다. 4부에는 연령별 단위 선교회와 축구 등 스포츠 선교회가 선별적으로 참여해 봉사를 이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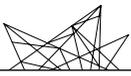
2022년에는 교회 방역 봉사 기회를 늘려 다양한 선교회들이 교회 방역에 참여해 모임이 없는 코로나 시대에 서로 교재를 나누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회 방역팀이 설치되면서 줄곧 봉사자로 참여해 온 김 회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 손이 부족했지만, 요즘에는 단위 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봉사 지원자가 늘어 보다 체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독포를 나눠드리고 난 뒤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자신이 앉았던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면서 봉사자를 방역 취약 지점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방역 효과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방역 파수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방역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갈 것”이라는 김 회장은 “교회 내의 다양한 선교회와 자치 조직들이 순차적으로 교회 방역에 참여해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글 · 이상욱 목사 (사)청소년불씨운동 대표, 숭실사이버대 청소년코칭상담학과 겸임교수, 한국MMFC공동대표

‘메타버스’란 단어는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조어이지만 장년 세대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메타버스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의 정의가 어떤 의미인가에 관해 아직 명확한 약속은 없지만 ‘메타버스’(플랜비디자인, 2020)의 저자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라고 정의하였다. 약속된 정의가 아님에도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통용하는 개념이다.

메타버스란 말은 1992년 닐 스티븐슨의 SF 장편 소설 『스노크레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 후 메타버스 개념을 담은 여러 영화가 만들어졌다. 특히 <레디 플레이어 원>은 메타버스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해당 영화에서 주인공은 HMD(head mount display)라는 가상 현실로 들어가는 기계를 착용하고 가상의 세계에서 활약한다.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어렵다면 이 영화를 추천한다.

메타버스의 활용

메타버스에 관한 기술은 이미 오래 전에 등장했다. 다만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 지수가 높아지면서 메타버스 기술은 급격히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래된 기술이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등장과 함께 각광을 받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도 경제적인 논리 때문이다. 기술을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메타버스라는 추상적 단어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주식 가치 상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기업 브랜드에 넣으면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메타버스에서 쓰고 있는 기술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온 ‘오래된 미래’이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실시간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가진 기업은 승자가 되었다. 스트리밍을 활용하여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줌(zoom), 회의에 참여하는 아바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제작하여 현실감을 높인 스페이셜(spatial),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사용했다는 마인크래프트, 접근성이 좋은 게더타운과 같은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페이스북은 최근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자신들만의 가상 세계인 '허라이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허라이즌에서는 자신들만의 가상 화폐를 사용하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은 현실과 직접 연결된다. 이처럼 현실과 가상의 경제 세계가 결합되고 있기에 많은 기업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다.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가상 화폐는 수시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어 현실의 경제가 가상의 세계에서 실재한다.

이 밖에 블랙핑크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페토)에서 자신들의 월드(놀이터)를 만들어 팬들과 소통했다.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포츠나이츠라는 메타버스 게임 공간에서 발표되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 대학의 입학식이나 축제, 기업체의 품평회 등도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증강 현실(AR: Augmented Reality)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은 인공지능(AI) 기술과 함께 새로운 세상인 메타버스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장년 세대의 메타버스 접근법

위드 코로나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 이전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리라 예측한다.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비대면 시기 사용한 편리한 기술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할 것이기에 장년들 역시 가상 세계에 대한 이해는 불가피하다.

먼저는 적응이 중요하다. 사이버 세계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적응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구글에서 정보를 찾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면 이미 메타버스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이다. 줌을 통해 소통하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다면 이미 메타버스를 경험한 것이다. 절대 어렵지 않다. 익숙함의 차이이다.

다음으로 가상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간과 공간 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면 그곳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곳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번성해야 할 곳이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접근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기성세대는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 속에서 하이브리드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 디지털 세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나누기보다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용 빈도를 늘려 불

편을 줄이고, 현실에서의 지혜를 사이버에서의 소통에 담아가성세대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사회에서의 교회 역할

지금 교회에 던져진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변화와 적응'이다. 교회의 지도자는 변화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틀림없이 지켜야 하지만 원리를 전달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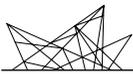
기술과 문화의 5%정도만 변해도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므로 미래의 교회 역시 95%의 영역은 변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단지 5% 미만만 변화할 것이며, 그 변화의 물결에 교회가 탑승해야 기회를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눅 12:56)”라고 하셨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변화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지금 전 세계가 마치 중세에서 근세로 들어오는 과정에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누구도 어떻게 변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특히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이버와 현실을 연결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특별히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전도, 친교와 가르치는 일에 에듀테크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쉽게는 화상 통화를 통한 심방, 교회를 알리는 영상 링크 공유를 통한 전도, 유튜브를 사용하는 영상 광고, 줌을 이용한 소그룹 모임 등이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넘어 다음 단계는 가상 세계인데 필자가 느끼기에 본격적인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느리게 변화할 수 있다.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범사에 그(하나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포스트코로나 시대)을 지도하시리라(잠 3:6)”라는 말씀처럼 보편적 길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더욱 더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메타버스 교회 사역, 어떻게 준비할까?

글 · 김현철 목사 (행복나눔교회 담임목사, 『메타버스 교회학교』 저자)



메타버스는 잠시 유행하고 지나가는 'BUZZWORD'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영역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교육계와 종교계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교회 교육에서 메타버스를 적용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지속적 교육이 가능하며 Z세대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메타버스 교회 교육은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이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메타버스 교회 교육이란 가상 공간에서의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인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에서는 일찍이 메타버스의 영역을 증강 현실, 가상 세계, 라이프로그, 거울 세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메타버스를 교회 교육에 활용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메타버스 세계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 요소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교회 교육을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1) 소통

기존의 교회 교육 방식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메타버스 교회 교육에서 소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기획할 때부터 교육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를 태생적으로부터 접한 Z세대들의 집중력은 8초라고 말한다. 이러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관심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 퀴즈 요법이 탁월한 효과를 거두는 방식이며, 교육을 진행하는 이들과 학생들 간의 절대적 신뢰가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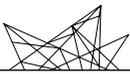
(2) 놀이

교육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꼬집어내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주입식이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놀이를 하듯이 학습을 할 때이다. 핀란드에서도 교육 혁명 시 놀이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놀라운 효과를 얻었다. 메타버스로 교회 교육을 할 때 가상 공간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지만 증강 현실, 라이프로그의 영역으로 진행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필자는 교목으로 10년을 섬기면서 '성경 요절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보내기', '다윗과 골리앗 영화 포스터 만들기', '성경 요절 모자이크로 만들기', '예수님의 비유를 콩트로 표현하기' 등의 놀이 요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성경 수업을 진행했다. 그 효과는 복음화율이 12%였던 교실에서 성경 수업을 기다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메타버스의 영역이란 단지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콘텐츠를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의 영역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재미

메타버스 교회 교육은 단지 조회 수나,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전부 아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재미'라는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말초적인 감각을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몰입'의 정도가 요구된다. 게임이나 영화, 방송들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객들이 몰입하도록 엄청난 투자를 한다. 하지만 몰입은 물량을 얼마나 쏟아 붓는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도 외면받을 수 있고, 저렴한 제작비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포커스 II

(4) 차별성

메타버스의 세상에서는 그 어떤 정보들도 신속하게 복제되며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교회 교육에서 적용할 때는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섬기는 행복나눔교회에서 콘텐츠에 대한 원칙 중의 하나는 '지난번에 한 것은 안 한다'이다.

팬데믹 시대의 종려주일이었던 2020년에는 '드라이브 스루 애찬식'을 거행했고, 2021년에는 '랜선 성지 순례'를 하였으며, 2022년에는 '랜선 순교지 순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전에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이를 다시 활용하면 효과를 잃어버리므로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4) 복음과 연결

교회 교육의 핵심은 만족도 같은 흥행이 아니다. 교회 교육의 핵심 목적은 학생들이 성경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다만 기억해야 할 일은 교회 교육은 언제나 복음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교육적인 훈화나 학생들의 만족이 아니라 결국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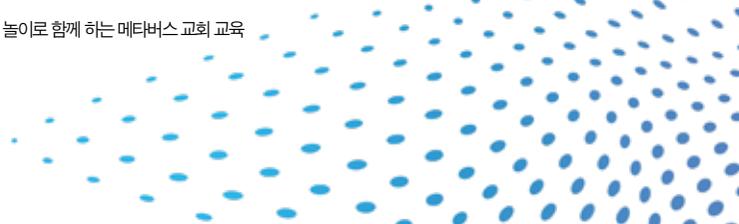
☞ 메타버스를 활용한 코스타



☞ 재미의 요소를 결합한 메타버스 교회 교육



☞ 놀이로 함께 하는 메타버스 교회 교육



DASEMO 2021 Summer Global zoom online-Camp BEGINS

7/29-30 (THURSDAY - FRIDAY)
6:00PM - 9:00PM
ENTRANCE: FREE
DASEMO SERVES FOR THE NEXT GENERATION.
INQUIRY: PASTOR YUN SEOK HO
0103967489

김현철 목사 0103592061
필리핀 김용기 0917325272
PTR. JEWARD CARPID
09465563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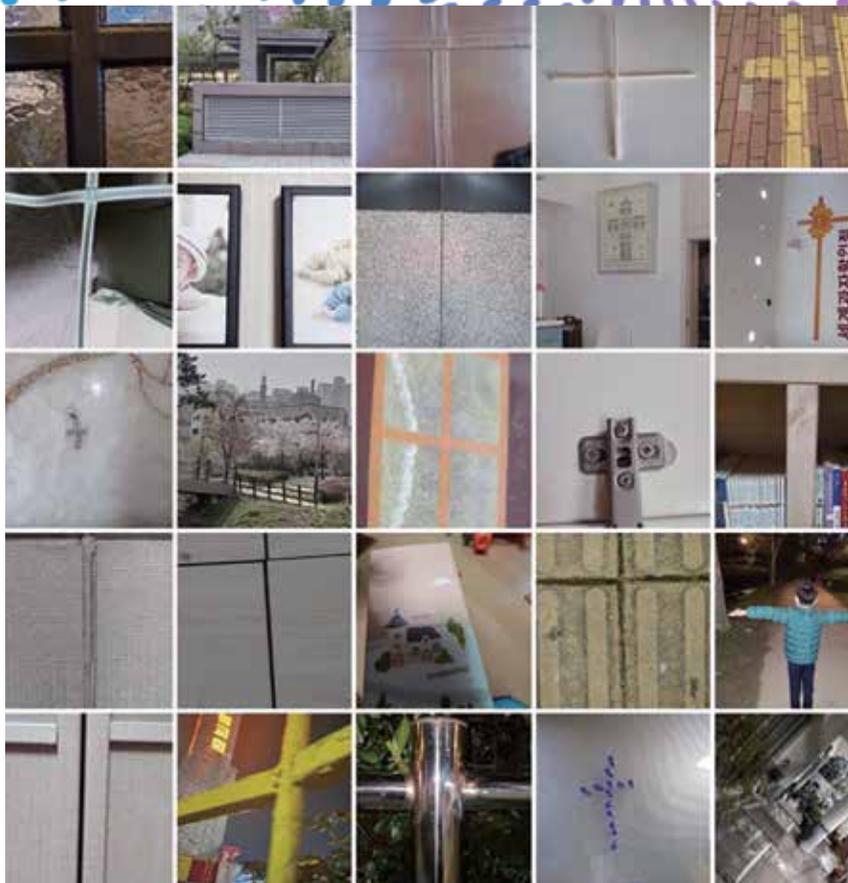
장인재 담임 / Sermon
박상혁 목사 김현철 목사
말씀예찬양 / Praise Concert
크로스AC 김보라이언 세우기
김형 / M.C. 유은영 목사 김은진 목사 김은희 목사
참소 전주초침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를 도우실
모든 영혼은 깨달은 영이 내 땅에서 영혼 영이 (2021)

"It's not some guy down 'til you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 메타버스 글로벌 선교캠프

≫ 복음과 연결되는 메타버스 교회 교육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전의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담론을 담을 수 없다.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문화 변혁자'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혁신적인 편지 시스템을 통하여 감옥에 투옥되고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 성경을 통해 오늘날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당시의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인쇄술을 통하여 성경과 책자들을 전 유럽에 신속하게 보급하면서 종교 개혁은 가능해졌다.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불변한다. 단지 문화라는 그릇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메타버스의 영역을 교회학교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그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공교육을 앞섰다. 하지만 공교육이 '교육공학'으로 대표되는 변신을 거듭하고, 메타버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정체되면서 이제는 역전을 지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메타버스는 교회학교의 변화를 위한 최선의 기회이다. 그 누구에게나 새로운 출발인 메타버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디지털 바벨론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Mother's Wise

마더와이즈를 아십니까?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말씀을 공부하며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가정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배웁니다.

멘토링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여성들이 서로를 멘토링하여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며 격려합니다.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토의

중보 기도

여성들이 소그룹에서 연합을 이루어 서로의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마더와이즈가 뭐예요?

모든 여성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는?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자유와 활력을 얻어 성경이 말하는 부모 역할을 삶 속에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체계적인 말씀 공부와 소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 얻은 생명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 ‘지혜’, ‘회복’

온라인 마더와이즈 ‘자유’

일시. 2020년 7월 18일 ~ 9월 12일(토) 9주간

인원. 지원자 88명 + 스텝 15명

온라인 마더와이즈 ‘지혜’

주제. **그대가 있어서(Because of you)**

일시. 2020년 12월 19일 ~ 2021년 2월 20일(토) 9주간

인원. 지원자 103명 + 스텝 22명

온라인 마더와이즈 ‘회복’

주제. **아름답고 특별한 그날에(On a Beautiful and Special Day)**

일시. 2021년 9월 4일 ~ 2021년 10월 23일(토) 7주간

인원. 지원자 86명 + 스텝 23명



‘자유’, ‘지혜’, ‘회복’을 주제로 세 차례 온라인 마더와이즈를 진행한 이미경 사모. 2022년에는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여성이 함께하며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 멘토링을 통해 자녀 양육법과 사역을 위한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온전한 회복

마더와이즈 '회복'을 소개합니다

글 · 변애양 집사(마더와이즈 부팀장)

—
마더와이즈는
'자유', '지혜', '회복'의 세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며,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
성경 공부 과정입니다.



♣ 4일간의 드레스 촬영 마지막을 기념으로 부케를 던지며
즐거워하는 신부들. 부케는 누가 받았을까요?



♣ 예수님과의 천국 혼인 잔치를 상징하는 웨딩드레스 촬영.
결혼식날의 추억에 설레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한 날

마더와이즈-회복

코로나19 탓으로 '마더와이즈-자유'를 영겁결에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과연 영적 나눔이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될까?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거나 할까?' 하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와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티칭 그리고 나눔을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지난 10월 '마더와이즈-회복'이 온라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나, 하나님의 딸로서의 나'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으로 많이 지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던 매일이 마더와이즈-회복을 하는 동안 하루하루 회복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나를 예비 중에 들은 적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엄청난 일인지를 이번에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찾기

첫 번째 과제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작성하는 동안 '내 자존감이 이렇게나 낮구나' 하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까지 넣어 가며 겨우겨우 채워서 제출했지요. 강의 멘토이신 이미경 사모님이 겨우 채워 낸 20가지 이유를 연애편지 쓰듯 자상하게 하나하나 칭찬해 주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닌 22명의 스텝과 86명의 게스트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답을 써 주는 것을 보며 감동과 감사가 더해져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주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온몸으로 느



끼게 해 주는 마더와이즈-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언약의 표시로 주신 반지를 끼며 감사에 폭 빠져 지내고, 세 번째 주에는 마이크를 통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혼인 잔치가 늘 막연하기만 했고 남의 얘기처럼만 들렸던 저에게 마더와이즈-회복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며 미땅히 사랑받고 행복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 경험

6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스텝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품어 주시는 이미경 사모님께 감동받고, 처음에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게스트들이 하루하루 은혜받고 변화되어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또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심을 온몸으로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피로 회복인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우리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마더와이즈-회복에 참여한 게스트들의 소감문 중 일부를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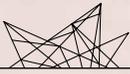
1. 게스트들에게 보낼 키트를 포장하고 나서 스텝들
2. 마더와이즈-회복' 수료증을 전달하는 날 부스에서 스텝과 게스트가 함께
3. 스텝 조별 기념 촬영, 게스트와 함께 하기 전 스텝들도 먼저 공부하고 조별 나눔을 해 봅니다



☞ 온라인 수료식에서 대표로 수료증을 받고 있는 김선희 게스트

사랑하는 주님께서 ○○ 너의 이름은 헵시바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가장 큰 회복은 내 자신의 회복(헵시바)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딸아이를 바라봄이, 남편을 바라봄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바라봄이, 동일하게 그들도 헵시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런 사랑을 받은 헵시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6조 이○○)

-회복' 소감문 중-



거룩한 밥상!

글 · 최병화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매일의 밥을 먹듯이
말씀의 밥을 먹자!
[말씀밥 프로젝트]





기본기를 갖춰라

2014년 여름, 윌로우크릭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에서 진행되는 'THE GLOBAL LEADERSHIP SUMMIT'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의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특강과 세미나, 그리고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민족과 언어, 문화가 다른 몇만 명의 사람이 모인 그야말로 글로벌 집회였습니다. 강사진들도 당대 최고의 리더 그룹들을 이끄는 CEO이거나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돌아보면 저의 인생에서 아주 유익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차세대 리더들에게 던지는 강사님들의 메시지에는 하나같이 기본기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영역에서 꾸준한 반복을 통하여, 성실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이 기본기를 간과함으로 인해서 좋은 리더들이 양성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권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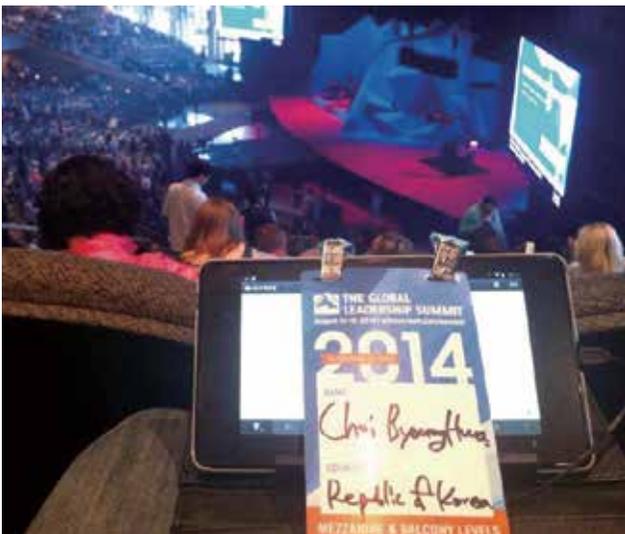


⇒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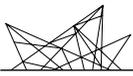
신앙의 '기본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는 것!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잘 갖춰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과 반찬을 먹습니다. 때로는 잘 차려진 수라상을 대하기도 하고, 급할 때는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 비빔밥을 해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밥상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기를 쌓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거룩한 밥상'이 되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세워 줄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밥상을 함께 대하며, 영육이 자라 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어떨지요?



⇒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 'THE GLOBAL LEADERSHIP SUMMIT'



경기도 안산시
화정교회

117년간 자리를 지킨 뿌리 깊은 교회

글 · 김용기



☞ 화정교회는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고 정겨운 농촌 모습을 품고 있어 전원교회로 불린다



☞ 화정교회는 '꽃우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뿌리내린 100년, 열매 맺는 100년

“허, 화정교회는 우리 교회란 말이여!”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놓고 마을 노인회에 논쟁이 붙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화정교회(담임목사 박인환)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을 노인회가 헌금을 결의하며 작은 소동이 일어난 것.

마을 노인회에서 100만 원의 건축헌금을 결의하자 마을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 사정에 밝지 않은 회원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

“다른 동네에서는 교회에서 노인회를 돕는데 이걸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우리 노인회가 무슨 돈이 있어 교회에 헌금을 합니까?”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신자 노인회 회원들까지 한목소리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화정교회는 우리 마을 교회란 말이여! 교회가 10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 줬는데 우리도 정당한 보답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지!”

이 작은 소동은 벌써 17년 전의 일이 됐지만, 화정교회의 정체성을 지역 사회에 각인시킨 중요한 사건이 되어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ㄹ 화정교회의 교정에는 오래된 모습의 종탑이 있어 117년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ㄹ 2004년 화정교회 100주년을 기념해 세운 '100주년 기념교회 봉헌 기념비'

전도 받은 초대교인들이 세운 최초의 지역교회

경기도 안산 화정마을 일명 꽃우물마을은 40여 호 남짓 주민들이 사는 농촌 마을이다. 주변 일대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며 급격하게 도시로 바뀌고 있지만 화정마을은 아직도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꽃우물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화정교회를 다니는데, 요즘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원교회를 찾아 출석하는 교인들이 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역사가 오래된 국내 초대교회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점차 늘어 가는 것이다.

1904년 세워진 화정교회의 설립 초기 유래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묵묵히 지켜왔던 지역의 초대 교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당시를 추측하게 할 뿐이다.

화정교회와 같은 해에 인근에 설립된 거모개교회(현 군자교회)에서 전도를 받은 교인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설이 유력하다. 화정교회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버딕(Burdick, G.M) 선교사의 보고 자료이다. 한국명 변도직 선교사는 1905년 서울에서 열렸던 연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수원 지방 안에 오미, 선납재 그리고 고주물 등 3개 구역을 각각 24명, 31명 그리고 94명의 인원과 함께 등록하였다”라고 보고했다.

여기서 고주물은 화정(꽃우물)의 원래 이름으로 화정교회가 1904년에 설립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특히 같은 해에 설립된 다른 교회에 비해 성도 수가 가장 많은 것을 볼 때 빠르게 성장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일제 탄압과 한국 전쟁 피해 이겨 내고 재건

지역 사회 복음화에 앞장섰던 화정교회는 교회의 주축이었던 박덕현, 박석현, 윤동욱 씨 등이 1919년 3·1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쫓기게 되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은 그로부터 9년 뒤인 1928년쯤이다. 교회의 기록

에 따르면 박덕현 씨의 부인 오사라 씨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중 남편이 어려움을 겪자 심리적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친정으로 가게 됐다. 친정 오빠였던 오 전도사의 도움으로 마음을 회복한 오 씨는 마을로 돌아와 교회를 다시 열었다. 당시는 마을에 예배당이 없어 왕복 40리 길을 걸어 거모개교회를 출석했다. 오사라 씨의 전도로 교인들이 늘어나며 교회를 다시 짓기로 하고 1930년 1월 수암면 신암골에 있는 예배당을 헐어 그 자재로 화정리 550-1번지에 여섯 칸짜리 예배당을 지었다.

화정교회는 한국 전쟁을 겪으며 예배당과 사택이 소실되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교회를 재건하며 117년의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며 지역 복음화의 등불을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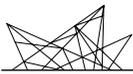
1960년 교회를 재건축할 때는 믿지 않는 주민들을 포함해 마을 전체가 나서 인근 야산에서 나무를 직접 베어와 자재로 썼을 정도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좋은 일 하는 곳으로 교회가 마을에 꼭 필요한 한 식구라는 인식이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

받은 사랑 돌려주는 새로운 100년 선교 약속

지역 주민과 함께 온갖 시련을 겪으며 성장해 온 화정교회는 ‘뿌리 내린 100년, 열매 맺는 100년’이란 교회 슬로건을 앞세워 지역 복음화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안산 최초의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의 역사를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과 아울러 빠르게 성장하는 화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는 지역 주민 전도에 노력하고 있다.

이름다운 전원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잔디 운동장을 갖추고 있는 화정교회는 ‘꽃우물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어린이 전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글 · 김은숙

다니엘(Daniel)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란 뜻이다. 믿음의 용사로 상징되는 다니엘은 믿음이 약해져 가는 지금의 세대에 많은 교훈과 강한 용기를 주는 인물이다. 다니엘을 논하려면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함께 묵상하지 않을 수 없다.

유다의 여호아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을 때, 많은 보물과 함께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 뛰어난 자들을 추렸다. 추후 왕을 모시게 할 목적이었다. 잇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격파한 바벨론은 마침내 유다 왕국을 세 차례나 침공하였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차 침공(B.C 605년) 때 포로로 끌려갔다. 이후 3차 침공 때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했으니 이 때가 B.C 586년이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온 지 3년째 된 어느 날, 왕이 괴이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많은 술객이 풀지 못한 그 꿈을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가 풀게 되었다.

순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왕에게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라 해석했다. 한편 금은 바벨론, 은은 메대와 바사 제국, 동은 헬라 제국, 철은 로마 제국,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몽했다. 그의 예언대로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예시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그 당시 지속된 고대 600년 왕국의 역사와 앞으로의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우고 지방장관 및 대신, 총독과 고문관 등 많은 사람에게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를

거역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결박해 7배나 달궈진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던지고 말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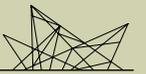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굶어살피 주십시오.”

[단 3:17-18, 새번역]

이기적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야(단 3:28 상반절, 새번역)”라고 했고,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B.C 539년경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다리오는 능력이 뛰어난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 최고 총리로 삼으려 했으나 그를 시기한 반대 세력들이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왕께 고하여 그를 죽이고자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이튿날 왕이 사자굴에 가보니 다니엘은 몸에 상처하나 없이 살아 있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으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당장 현실에서는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증거해 주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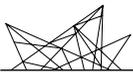
복음의 씨앗, 믿음의 영웅

문준경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들(성도들)은
살려 주시오”



글 · 오성택 목사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장)



경성성서학원에 들어가다

문준경은 1891년 2월 2일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365번지에서 문재경씨의 3남 4녀 중 3녀로 태어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성격은 유순하고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으며 고운 마음씨를 기졌고 목청이 좋아 노래를 잘 불렀다. 열일곱에 중매로 혼인하여 증도에서 20년간 시집 생활을 하게 되고, 37세 때 목포로 나가 유달산 밑에서 셋방을 얻어 쉼바느질을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부인으로부터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고난으로 가득했던 문준경의 삶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천둥처럼 들어오시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거듭나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으며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후 신안의 여러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던 중 자신의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함을 절감하고 더 많은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체계적인 학문의 필요성을 깨닫고 당시 이성봉 전도사의 도움으로 경성성서학원에 들어가 공부하게 된다.

섬마을의 전도자이자 어머니

경성성서학원에서 체계적 신앙의 배움을 시작한 문준경 전도사는 신안 지역으로 내려와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적으로 선교에 임하였다. 많은 어려움과 외면 속에서 묵묵히 행한 박애와 헌신의 전도는 조금씩 섬 주민들을 움직이고, 섬 곳곳을 영성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문준경 전도사는 섬마을의 전도자이자 어머니였다.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세웠던 교회와 기도처 여섯 곳이 바로 그 씨앗이 되었다. 그녀가 순회하며 섬겼던 여러 기도처들도 후에 교회로 성장했다.

그녀는 낮은 자들의 어머니가 되어 헌신적으로 그들을 보살폈다. 보통 사람은 1년에 고무신 한 켤레만 되었지만 문 전도사는 1년에 무려 아홉 켤레의 고무신을 신어야 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문 전도사의 사택은 마치 '목민 센터'와 같았는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과부처럼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이 모여 함께 생활했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 살아도 하나님의 뜻

문 전도사의 기도에는 정신병자와 중풍 병자 등 각종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가 따랐다. 실제로 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었으며 '섬 의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문 전도사가 즐겨 사용했던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는 친인척을 찾아다니며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를 전도의 거점으로 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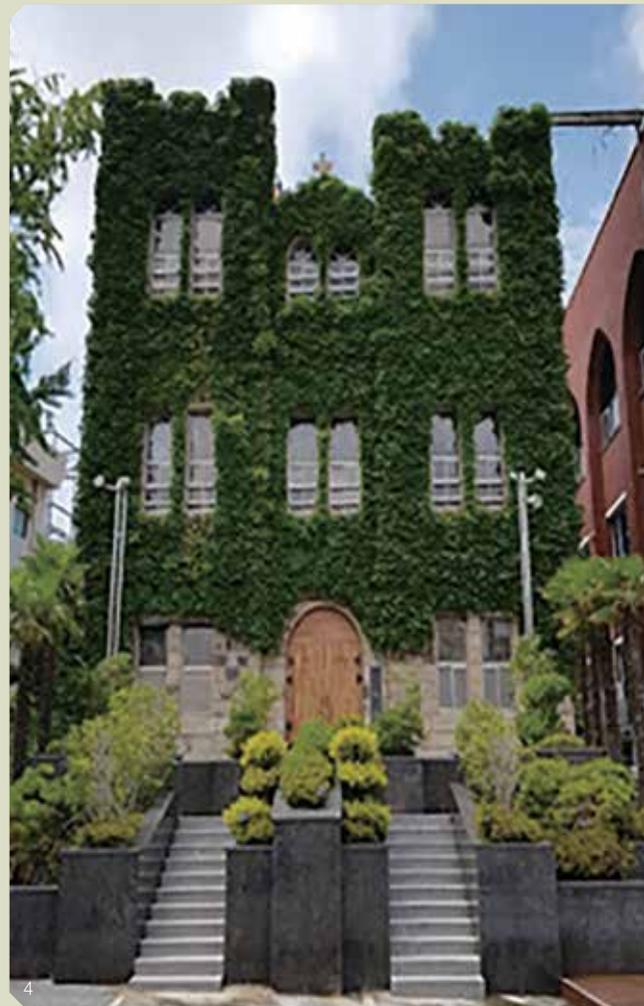
문 전도사는 산파 역할도 톡톡히 하였다. 평생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그녀였지만 산모에게서 아이를 받고 돌보며 키우는 데는 선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의원 역할, 또 어떤 때는 집수리에 도배까지 하는 등 섬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도우며 몸으로 행하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중동리에 장티푸스, 흔히 염병이라 불리는 전염병이 돌았다. 한 집에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전염되기 일쑤였다. 죽는 사람이 속출했지만 환자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전염될 위험이 있었기에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다. 이때 문 전도사가 환자의 집에 들어가 시체를 옮겨 조출하게 장례를 치러 주고, 전염되었지만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했다.

교인들이 전부 말리고 나섰지만 문 전도사는 "시체들이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어찌 그냥 두고만 보겠습니까? 이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 주세요"라고 대답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1



4



2



3

고무신 9걸레

고무신 9걸레가 닦도록 걷고 걸었던 수십km 길이의 노두길.

문준경 전도사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굴하지 않고, 노두길과 풍신배(뚝탄배)로 성품을 다지며, 학예와 헌신의 삶을 살며 사랑을 실천하였다.

5

문준경 전도사를 길러낸 이성복 목사



이성복 목사는 문준경 전도사가 사역자의 길을 걷는 초년 때에 그리고 고비고비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큰 도움을 주었던 한국 교회가 낳은 진실적인 부흥사이다.

이성복 목사가 목회 목교종 교화에 부임해 와서 목회 활동에 에너지를 집중할때 평소 소망을 느끼고 기도하던 문준경은 드디어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게 된다.

문준경 전도사는 신학교에 입학 할 수 없는 무자격의 상황이었으나, 이성복 목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정식 입학하게 되어 사역자의 훈련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

6.25 남침 이후 휩쓸린 중동리 교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성복 목사의 면류에도 불구하고 중동리로 돌아간 문준경은 결국 순교하였다.

6.25 남침 이후 휩쓸린 중동리 교인들을 구하기 위해 문준경 목사는 이성복 목사를 만나게 되고 있는 이성복 목사는 그의 귀환을...

6

- 1891년 2월 2일, 문준경 전도사가 태어나고 결혼 전까지 지낸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전경
- 처음 교회에 가서 만나게 된 첫 번째 멘토 장석초 전도사, 문 전도사는 그로부터 중생의 복음을 접하고 거듭나게 된다
- 문준경 전도사 생가에 있던 우물
- 1927년 3월, 복음을 처음 듣고 출석한 북교동 성결교회
-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 발자국
- 문준경 전도사의 신앙의 스승인 이성복 목사와 문준경 전도사



7



9



8



10



11



12



13



죽음 앞에 서다

1950년 6·25 한국 전쟁으로 수많은 양민이 학살되고 교회가 탄압을 받았다. 이는 신안군의 작은 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32년 입자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대초리교회, 우전리교회, 재원교회, 방축교회 등을 차례로 개척하며 섬 선교의 어머니로 불린 문준경 전도사가 있던 증동리교회 역시 노골적으로 탄압을 받게 된다.

이에 위협을 느낀 문준경 전도사는 배를 마련해 평소 딸처럼 생각하던 백정희 전도사와 양도천 전도사에게 피신하라고 권유한다. 두 전도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노라며 오히려 문준경 전도사에게 피신하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평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를 외치며 손수 수의를 준비하고 관을 짜 놓았던 문준경 전도사는 "나는 늙어서 죽어도 좋으나 두 전도사님은 살아서 주의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라며 두 전도사를 강권하여 배에 승선시킨다. 하지만 이때 나타난 공산군이 곤봉과 죽창을 들고 달려와 승선한 두 전도사를 배에서 끌어내리고 마구 때리며 짓밟고 말았다.

얼마 후 국군이 목포에 상륙했다는 말이 돌아 이를 전해 들은 공산군은 후퇴하며 10월 4일 밤 비밀에 배를 드리던 문준경 전도사를 비롯한 증동리교회 신자들과 양민 수십 명을 비닷가 모래사장으로 쫓졸이 엮어 끌고 간다. 문준경 전도사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들(성도들)은 살려달라"며 자신보다 성도들을 위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다

그러나 공산군은 문 전도사를 향해 '반동의 새끼를 많이 까는 씨앗'이라며 곤봉과 죽창을 휘두르며 마침내 총탄을 가슴에 꽂는다. 문준경 전도사는 10월 5일 새벽 2시 복음 전파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증동리의 하얀백사장에서 "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외치며 59세의 나이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사라진다.

문준경 전도사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만을 위해 살지 않았다. 오직 그녀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었다. 실로 그녀는 기독교 지도자의 참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로써, 행동으로써 잘 보여준 믿음의 영웅이었다.

- 7. 문준경 선교사순교사비
- 8. 사용하던 교회 종
- 9. 문준경 전도사가 개척한 대초리교
- 10. 1년이면 아홉 결례의 고무신이 많아 없어질 정도로 마을을 찾다니며 전도했던 문준경 전도사
- 11. 문준경 전도사가 전도다녔던 증동의 돌길을 기념관에 재현해 놓았다
- 12.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장면
- 13. 문준경 선교사가 사용하던 절구
- 14. 문준경 전도사의 성경책
- 15. 문준경 전도사의 절절한 기도문



문준경 전도사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온 생애, 이 한복속 죽어도 주님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요, 우리의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시나 당신의 오만할 말씀 응시해주길 기도할 뿐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이 몸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소만 당신들도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바랍니다.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요, 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양심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선행으로 충만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갈 2:20)이란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지도 못다 한 기도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되면 사랑스러운 언어로 마지막을 장식한 순교자 스테반의 기도를 지금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한 많은 나의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주신 큰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부패한 내 영혼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비천한 저를 받아주소서!"



✎ 지난해 11월 성전예배를 드리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

교회학교의 끊임없는 예배에 대한 열정

글·전영숙

없어지고 나서야 그 귀함을 느낄 때가 많다. 예배가 그랬다. 팬데믹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고 나자 비로소 성전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드러졌다.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더욱 열심히. 교회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21년을 돌아보았다.

온라인예배 통해 성전예배의 소중함 깨닫게 돼

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성전예배가 금지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속한 교회학교는 제한적으로 방역 조치가 해제될 때마저도 성전예배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지난해 6월 잠시 문이 열렸다가 이내 닫히고 11월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을 때 담당 교역자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어요. 예배 때 학생들의 무반응조차 고맙게 여겨지는 시간이었죠. 지난해 11월 성전예배를 앞두고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학창 시절 주일 준비하던 때의 그 순수한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

신이 난 아이처럼 말하는 고등부 담당 사역자 김환 전도사의 마음은 중등부, 초등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다. 부임하자마자 온라인예배로 학생들을 대해야 했던 중등부 담당 사역자 최성직 목사는 연말까지 학생들 얼굴 다 보는 것을 목표로 매주 학교나 학원, 집 앞까지 찾아다녔지만 방역 조치가 4단계로 상향되며 이마저도 막혀 아쉬움이 컸다고 했다. 보고 싶은 아이들을 드디어 보게 돼 너무나 기뻐했다는 초등6부 담당 사역자 유현애 전도사는 학생들을 보고 품에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선물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는데 훌쩍 커버린 아이들 모습에 놀랐고 “제가 그 친구예요” 하며 다가설 때 뭉클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 지난해 1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강사의 소통 모습



중·고등부 :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관심 유도

온라인예배가 지속되면서 그 편함에 예배의 본질을 잃은 채 살아온 것 같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은데 교회학교는 경우가 더 심해 고등부는 9시 정시에 예배를 드리는 학생이 35%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 등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집중하게 되면서 학원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문외한이었던 영상 제작에도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되었다는 김환 전도사. 김 전도사는 지난해 6월 성전예배가 처음 열리던 날 이어지는 찬양들이 한편의 설교인 듯 찬양 예배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기억했다. 또한 zoom을 이용한 제자훈련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했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40일 기도 책자를 만들고 고품격 음악 방송 '수고했어, 오늘도'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학업의 부담이 적었던 중등부는 상황이 조금 나아 9시 예배 출석률이 높은 편이기는 했으나 학기 초 연합 지파 운영으로 반 모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최성직 목사는 반 모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후 특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댓글을 통해 쌍방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련회를 마치고 뒤풀이 행사로 카트라이더 대회를 진행했는데 참여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관람하는 학생들에게도 쿠키를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등 200명 정도가 참여해 학생들의 관심이 대단했다. 이것이 교회 전체로 홀리라이트 카트라이더 대회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고등부에서는 지난해 '사람은 TV를 믿고'라는 주제로 독특한 형식의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 지난해 중등부 여름수련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명랑운동회





초등부 : 반 모임 활성화로 유대 관계 형성에 매진

2020년의 경우 갑자기 당한 일이라 대책을 세울 수 없어 겨우 유튜브 영상예배 송출에 그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초등6부의 유현애 전도사는 2021년엔 만반의 준비를 했다. 1월부터 9시와 11시의 연합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줌으로 반 모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과 교재 두 권을 모두 완료했다.

“아직 부모님의 입김이 통하는 나이라서 학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줌으로 진행하니까 최소 인원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교사 수급에 매달렸어요. 그래야 학생 관리도 편하고 부모님과 소통도 쉬우니까요.”

그 결과반 인원이 최대 6~7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는 유 전도사는 교사가 처음인 이들이 많았지만 욕심이 많은 만큼 괴롭히는 일이 많았는데도 함께해 준 교사들이 멋지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유 전도사의 교사 수급 전략을 살짝 공개하자면 제자학교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하려면 학부모가 교사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고, 이때 참여한 이들을 교회학교 교사로 유도한 것이다. 저학년도 1~3학년 연합으로 온라인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이것만으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

한 초등2부 김시란 전도사는 예배 후 줌으로 공과를 진행했다. 한 번 더 성경 이야기를 요약 설명하고 질문을 통해 소통하면서 학생들이 교사들과 유대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썼다.

“처음엔 줌에 익숙지 않아서 정착시키기 힘들었지만 ‘교사들은 아이들과 만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꾸준히 진행한 결과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성전예배가 이뤄졌을 때 서로들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예배 자리 지키기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김 전도사는 절기와 접목해서 학생들이 종이접기나 오행시 짓기 등을 영상 제작해 올리도록 하고 이를 공유하기도 했고 매달 출석상을 주면서 출석을 독려했다. 또한 매주 가정 통신문을 전달하면서 온라인이라 놓치기 쉬운 사역 관련 내용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이뿐 아니라 어린이영어예배부에서는 온라인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9월에는 락인캠프 일환으로 랜선클래스, 랜선바자회를 열어 아이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10월에는 할렐루야 데이 행사로 임진각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순례기도회’를 여는 등 다양함을 추구했다.



㉞ 어린이영어예배부에서 지난해 10월 가졌던 할렐루야 데이 행사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2022년, 예배 회복을 위한 온·오프 병행 노력 추구

2022년 새해의 상황도 온·오프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등부의 김환 전도사는 지난해 예배 형식이 기본적인 틀에 매인듯하다면서 보다 과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래서 올해는 수련회와 같은 큰 행사보다 반 사역 강화에 보다 매진하려고 한다. 1~3월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반별 아웃팅 횟수를 늘리는 등 친밀도를 높이고 출석 잘하는 친구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이끌어 가고자 한다. 올해 고등부 주제를 '성령의 바람, 우리의 바람'이라고 정한 만큼 새바람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

중등부 최성직 목사의 올해 바람은 '예배 회복'이다. 여전히 팬데믹으로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학생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해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올해 중등부 주제는 '정주행'이에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하는 중등부'라는 의미죠. 이에 따라 매달 주제별로 성경 속 인물 중심의 설교를 이어 나갈 생각이예요. 그런데 여름수련회 주제는 '역주행'입니다. 교사들이 이전의

역동적인 것을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되돌리면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게 목표랍니다."

온·오프의 병행 속에서 고민이 많기는 초등6부도 마찬가지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교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현애 전도사는 올해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모임에 고민이 많다. 집과 교회에서 모두 반 모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에 와이파이 시설만 확충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학생들과 보다 밀접하게 만나지는 제자학교 또한 매진할 생각이다.

상황이 어렵지만 성전예배를 경험한 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초등2부 김시란 전도사는 온라인예배가 사역자 중심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교사 중심의 은사대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초등 2부만의 제자훈련을 생각 중에 있다. 또한 공과 중에 가정예배지가 있는데 이를 통해 가정예배를 독려할 생각이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 고통이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교회학교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되는 2022년이다.



㉞ 초등부에서 추수감사절 때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한 달란트 잔치



㉞ 어린이영어예배부에서 지난해 9월 진행한 랜선바자회



㉞ 지난해 부활주일 때 중등부 학생들 각자 달걀을 장식했다



아버지의 헌금 봉투

글: 이지경 집사

2020년 10월 6일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날이에요. 암 말기 진단 후 딱 3개월 만에 갑자기 떠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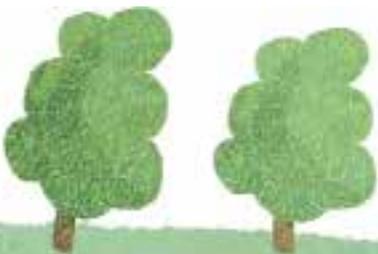
아버지는 30년 넘게 지방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목회 현장은 힘겹고 치열해 보였기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평생 주의 일로 고생하셨는데 암 중에서도 통증이 굉장히 크다는 체장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을 살짝 원망하기도 했어요.

저는 오랜 외국 생활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바랐어요. 어릴 적부터 가족 여행은 교회 수련회나 야외 예배, 여신도회 나들이 등으로 대체 됐었기에 한국에 오면 부모님 고향인 해남으로 함께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저는 그렇게 소박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독한 항암제와 진통제로 길고도 깊은 잠에 빠졌다가 잠시 눈을 뜨신 아버지는 병원에 있던 가족들을 향해 따라 하라고 하셨어요.

☞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아버지의 헌금 봉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보배 피”



너희가 꼭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며, 따라 하라고 하시기에 일부러 크게 따라 하면서 웃었어요. 웬지 아버지가 회복되고 좋아질 것만 같았거든요. 무서운 암 덩어리도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라면 다 녹여 버릴 거라 믿으며 힘든 시간을 버텨 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거기까지였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눈이 뒤로 넘어가고 대화도 안 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아버지 귀에 대고 울면서 여쭙봤어요.

“아빠! 우리랑 있는 거보다 천국 가시는 것이 더 좋으세요?”

의식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는 분명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매일매일 천국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끝까지 제 생각만 하며 아버지를 붙잡던 못난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천국 가신 이후에도 이별의 슬픔에서 계속 헤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 서재에 있던 책 속에서 현금 봉투를 발견했어요. 주일마다 드릴 현금이 각각 들어 있는 봉투였어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현금 봉투가 아버지가 남겨 두고 가신 비밀의 편지 같았어요. 빛이 바랜 성경책, 영어 성경을 필사하시던 노트들과 오래전에 쓰셨던 신앙 시적인 노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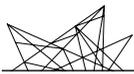
바쁘다는 핑계로 찬양하지 않은 삶, 일신상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던 나의 삶.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함을, 삶의 처음과 끝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죽음이 아닌 부활을 슬픔 가운데 소망을 붙잡는 믿음을 깨닫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믿음의 유산을 아낌 없이 나누는 삶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께서 써 놓으신 신앙 시의 마지막 부분을 옮기며 부족한 글을 마칩니다.

주여!
 우리의 죽는 날은 많은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 맺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죽음을 모르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우리의 죽는 모습에
 주님 믿고 구원받는 날이게 해 주십시오

- ‘죽는 날을 위한 기도’ (1992.10. 故이성부) -





어머니께 불러 드리는 찬송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들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3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4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렸을 적 친구들과 뛰놀고 들어와 방 안에서 열심히 연필을 끄적이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면 항상 들려오던 어머니의 노랫소리. 그때는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노랫소리가 자주 귀에 익어 저도 흥얼거리며 곧잘 따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찬송가 가사였다는 것은 국민학교 입학 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교회를 나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녔던 대전 선화동에 있는 집 근처 작은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아이들을 모아 놓고 칠판에 그림을 그려 가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신 후에 언제나 모두 같이 소리 높여 불렀던 찬송가 또한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다니엘, 다윗, 엘리야 등 이스라엘 영웅들에 관한 목사님의 열정 어린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는 신부전증을 앓으셔서 시간 대부분을 방 안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다 간혹 저희 삼 형제를 위해 부엌에서 간식이라도 해 주실 때면 항상 부르시던 노랫소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기에 지금도 이 찬송가가 들려올 때면 그 시절 편찮으신 어머니를 힘들게만 해드렸던 생각이 나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무척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저와 형제들에게 오롯이 베풀어 주시기만 하고 일찍이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가 그리워질 때면 저는 지금도 이 찬송가를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께 불러 드립니다.



글 김재호(광성필하모니)





청년광장





한국기독교영화제 대상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미디어팀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교멜레온

글/사진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미디어팀

‘교멜레온’은 ‘교회+카멜레온’의 합성어입니다.

영화 <교멜레온>은 청년의 때에 신앙과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담은 영화입니다.

제작 동기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 청년들에게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에 대해 많은 청년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자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혹은 세상의 것들만 원하는 사람인지 하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여 추상적인 믿음보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작 중 어려움과 감동

<교멜레온> 제작은 총 5개월(2021.05~10) 정도가 걸렸습니다. 청년들이 담당 전도사님과 함께 시나리오 작업부터 촬영, 장소 섭외, 스텝, 편집 등 모든 것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모두 처음 해 보는 일이다 보니 갖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함께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촬영장에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모일 수 없는 것과 장소 섭외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맞추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청년부 미디어팀에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했고, 모이기 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한 번 한 번 모일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며,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촬영이었지만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1. 거룩한빛광성교회 본당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인공 지용의 모습
2. 촬영 중 잠시 쉬는 동안 내려놓은 영상 촬영용 카메라
3. 교회 앞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세팅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매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중 한 가지를 뽑자면 영화 중간에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식당 촬영 씬 일주일 전까지 식당을 섭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어느 날 저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식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상황을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젊은 친구들이 고생한다며 실제 음식값보다 푸짐하게 저녁을 차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식당 촬영 일이 임박하자 식당 사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식당에서 촬영하시죠?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부담 갖지 말고 오셔서 마음껏 촬영하세요.” 촬영이 끝난 후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데 다 돕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말씀하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0월 3일 청년부 예배 후 <교멜레온> 상영회를 가졌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고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1. 촬영 전 대본을 숙지하고 당일 촬영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2. 식당에서 영화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3. 밤 12시, 막바지 촬영을 하면서 잠시 쉬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 한국기독교영화제 '대상' 수상 차선우 전도사(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담당)



대상에 이르기까지

<교멜레온>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콘텐츠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물음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곽승현 위임목사님께서 '2021 한국기독교영화제' 정보를 담당 전도사님께 보내 주셨고, 그것을 계기로 <교멜레온>을 제작하고 영화제에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단편영화 <교멜레온>이 2021년 한국기독교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 대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기에 대상 소식에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분한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교멜레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미디어와 콘텐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미디어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도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726> 굿티비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PLO8_LKIMNM cts 뉴스



1. 기독교 방송 CTS 뉴스에 <교멜레온> 상영회가 보도된 모습
2. 상영회에 앞서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 차선우 전도사(감독 겸 총괄), 이지웅 청년(교멜레온 주인공), 김요한 청년(카메라 감독)의 모습
3. 기독교 방송 CTS 뉴스에 주인공인 청년부 이지웅 청년의 인터뷰 모습





☞ 코로나19 사태로 수고하시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한 홀리라이트 박스



온라인 시대 청년들의 신앙

글 양한나(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2020년 1월, 아무런 준비 없이 코로나 시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 청년부 목사님의 권유로 기도하며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가운데 청년부 회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으로서 공식적인 첫 발걸음은 겨울수련회 준비였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하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겨울수련회를 준비하던 중 코로나19로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심지어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었지만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셀 모임이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 모임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모여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그 나라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모든 대면 모임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중단되며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떠나는 지체들이 생겼습니다. 팀장들과 리더들은 최선을 다하여 모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서로를 다독였지만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온라인 모임 시작

그렇게 1년을 보내며 모이기를 더 이상 멈출 수 없어 어색함을 딛고 온라인이라도 모이자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며 2020년 12월 청년부 목사님의 주도하에 밤낮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자는 마음으로 홀리라이트 박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마음이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육체는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인원이었지만 하나 됨을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는 것이 낯설고, 일정한 시간을 내어 컴퓨터 앞에 앉는 것이 힘들었지만 여전히 모임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고백하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매주 금요일 리더들의 모임과 매일 팀 모임과 셀 모임 그렇게 공동체를 다시 세워 가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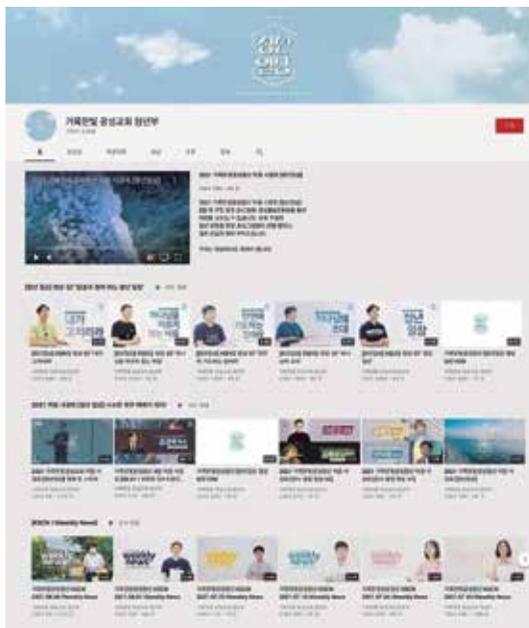
한 달 동안의 온라인 수련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주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온라인 주보를 각 지체들에게 전달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배에서 부를 찬양 곡들을 들어보고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집중했던 수련회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련회는 2박 3일의 집중 코스였다면 이번에는 8월 한 달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마음으로 8월 한 달 일정으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교역자님들의 헌신과 영상 편집을 도와준 형제의 헌신으로 8월 한 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 큐티가 전달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달되는 링크로 출근길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며 같은 기도 제목으로 1시에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온라인 독서 모임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지혜와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오전에는 한 주간 묵상한 영상 큐티를 나누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분명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였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는 공간을 초월하게 합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곳이며, 모든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곳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전히 온전히 온라인으로 공동체 지체들을 만나고 모임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즐겁습니다. 그러나 나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지금 우리의 불편함이나 어색함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지체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날을 지금 이 온라인 시대에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심을 쉬신 적이 없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온라인 여름수련회가 진행되는 8월 한 달간 매일 청년부에게 전달된 영상 큐티



온라인예배를 위해 만든 온라인 주보

제 삶의 멘토는 조춘동 집사님입니다



글 이용주(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 2010년 제16회 광주우아시안게임 취재 중인 조춘동 집사님

집사님을 만날 당시에는 제가 영상 제작자로 새롭게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초보이다 보니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한계의 벽에 가로막힐 때가 많아 날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지고 제 삶을 방관했습니다. 가정과 경제적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고, 이런 제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까지 날이 늘어나면서 결국엔 잠적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 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도중 조춘동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체득하고 깨닫는 것들로 인해 제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몸엔 언행과 삶 그 자체의 모습만으로 제 삶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덕분에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만이

아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게 찾아오는 고난은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편견 없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잠적하고 싶은 세상에서 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마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조춘동 집사님처럼 그저 자연스럽게 배인 언행과 살아온 삶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비전이 생겼고, 그렇게 되고자 제 인격적인 결함을 하나 둘 극복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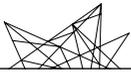


1. 거룩한빛광성교회 미디어팀에서 만나 나의 멘토가 된 조춘동 집사님과 함께
2. 2017년 고등부 여름수련회, 학생들과 수련회 활동을 하고 있는 조춘동 집사님



— 문화산책





달빛



권향수

·개인전 15회
·현대아산병원초대전
·SOAF코엑스전시회 외 단체전
100회 이상
·한국미술협회회원

작가노트

휘영청 둥근달이 떠오른 밤
달빛을 입어 꽃은 더 화사해지고
새들의 몸짓은 왈츠를 추는 듯 산뜻하다.
내 마음속으로도 달빛이 살포시 흘러든다.
그리운 얼굴들이 둥근 달처럼 떠오른다.
보고 싶은 얼굴들.
한 번쯤 돌아가 마주하고 싶은 시간.





열정의 차, 레드비트



글/사진 김규리(꽃차 소믈리에)

겨울의 차, 레드비트!

그 열정을 따라가 보면 팬데믹으로 지친 우리의 삶을 레드의 고희적인 컬러로 치유해 주는 듯하다.

따스한 기운이 온몸에 부드럽게 퍼지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차. 레드비트 차를 나는 '정열의 화신' 이라고 말하고 싶다.

집시 여인 카르멘이 생각나는 차다.



비트는 '땅속에 흐르는 피'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혈액을 맑게 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에 풍부한 베타시아닌 성분은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고, 철분은 적혈구를 생성하여 깨끗한 피를 만들어 빈혈을 완화해 준다. 영양 불균형이나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한겨울 레드비트 차를 자주 마셔 주면 좋을 것 같다.

레드비트 차 만들기

비트는 늦은 가을, 또는 겨울에 수확하는데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채 썰어 채반에 1~2일 정도 상온에서 말린 다음 식품 건조기에서 한 번 더 건조한 후 유리병에 보관한다. 끓는 물을 부어 차로 마셔도 좋고, 팬에서 수분이 제거될 때까지 덩고 식히고를 반복하면 더 구수하고 맛있는 차로 마실 수가 있다.

그리고 건조기에서 말린 비트를 분쇄기에 갈아 분말로 만들어 유리병에 보관하면서 한 스푼씩 물과 함께 마셔도 좋다.

비트 효능

- 유아의 척추 및 두뇌 발달, 기형아의 출생 확률을 줄여 주는 성분인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임산부에게 좋다.
- 암 예방, 고혈압 예방, 배변과 이뇨 작용 촉진
- 인슐린 조절, 간 기능 향상 등 셀 수 없이 수많은 효능이 있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살아 있는 날의 기쁨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 폴 발레리 -

글: 김은숙 (수필가, 필명 김지형)

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가 있다. 항상 낡은 장애인 전동차에 누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닌다. 게다가 멀리서 봐도 을씨년스럽게 보이는 것은, 할머니의 왜소한 체구 옆에 커다란 비닐봉지가 땅에 끌릴 듯 묶여서 펄럭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폐지가 아니라 폐캔(?)을 수집하러 다녔다. 버스 정류장이나 마트에 놓인 공중 휴지통을 돌며 버려진 강통들을 모으는 것이 그녀의 생업이었다. 알루미늄 캔들이 한가득 채워져 왈그닥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면 저렇게 한 자루를 모아 봐야 얼마나 받을까, 볼 때마다 안쓰럽고 마음이 쓰였다.

어느 날 전동차 옆에도, 할머니 품에서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냥 지나치려다 “왜 혼자세요?” 하고 물으니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옛그제 밤에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온방을 빙빙 돌며 신음하더니 끝내 내 무릎을 베고 쓰러져 죽었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나도 겪어 본 일이라 그 슬픔을 알기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 후로 할머니가 몇 달째 보이지 않았다.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견을 잃고 ‘비통한 마음에 홀로 고독사하지나 않았나?’ 하는 불안한 의구심이 들었으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오랜만에 머리를 다듬으러 미용실에 갔다. 입구에 낯익은 전동차가 서 있고 그 옆에 누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길게 뻗고 누워 가을벌을 씹고 있다. 안으로 들어서니 걱정했던 그 할머니가 파마를 마치고, 다소 아위긴 했어도 이전보다 깨끗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유기견 센터에서 떠난 강아지와 닮은 놈으로 분양을 받아 새 식구가 생겼다고도 했다. 순간 그분의 살아 계심이 그렇게 고맙고 기쁠 수가 없었다.

이어서 “... 그래도 살아야지요!” 하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 격리되어 침체됐던 내 마음에 큰 위로를 주며 원지 모를 힘이 솟는 듯했다.

선천적 장애를 지닌 할머니는 평생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키지 않아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는 저절로 이루어졌고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그 삶이 얼마나 신산(辛酸)했을 까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재난은 지나갈 것이다.

“그래도 살아야지요!” 여운이 남는 할머니의 음성은 지금 이 시기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이라”(에스겔 16:6)





영화 '쉰들러 리스트'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

글 강혜미

이 영화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1,100여 명에 달하는 유대인의 목숨을 구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영화의 초반은 쉰들러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인다. 그는 멋진 수트를 착용하고 소매 장식까지 다는 멋쟁이며 나치 당원 배지를 다는 것으로 착장을 마무리한다. 또한 그는 술과 여자를 즐기며, 나치 친위대가 모이는 연회에서 권력자가 누구인지 매의 눈으로 찾아 내 능수능란하게 로비에 들어갈 정도로 사업 수완이 좋다. 영화의 중반까지 그의 목적은 오로지 '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그가 유대인이 경영하던 냄비 공장을 인수하고 싼 값에 유대인들을 고용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다. 그 뒤에는 유대인 회계사인 이자크 스톤이 있다. 그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쉰들러의 회사에 고용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한다. 덕분에 쉰들러는 부의 축적과 맞물려 사치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한편 나치당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 간다.

그러던 중 수용소 책임자로 아몬 괴트가 새롭게 등장한다. 유대인을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하며 기분에 따라 살육을 일삼는 잔혹한 자였다. 얼마 후 쉰들러는 유대인의 거주 지역인 게토가 폐쇄되는 참상을 목격한다. 그 과정에서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는데 나중에 빨간 코트를 입은 소녀의 시신을 발견하며 적잖은 충격에 빠진다. 양심의 가책, 생명의 가치같은 것을 깨달았던 걸까? 이때부터 쉰들러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시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 부모를 고용해 달라는 유대인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는가 하면 스톤이 돕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의 시계, 라이터, 담뱃갑 등을 내어 준다.



급기야 사업을 정리하고 돌아가려던 쇠들러는 마음을 바꾸어 전재산을 들여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마음먹는다. 스텐과 함께 리스트를 작성하며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애를 쓴다. 쇠들러 리스트에 적힌 유대인들은 그가 수매한 수용소로 옮겨 와 안전해야 했으나 무언가 잘못되며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고 말지만 쇠들러는 결국 그들을 구해 낸다.

다행히도 새로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종전이 선언되며 나치에 협력했던 쇠들러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지만 유대인 직원들은 그가 자신들을 살려 주었다는 편지에 일일이 서명하며 그를 구명하기 위해 애쓴다. 또한 감사의 표시로 금니를 뽑아 반지를 만들어 쇠들러에게 선물하는데 그 반지에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반지를 받아든 쇠들러는 스텐을 부여잡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했음을 한탄한다. 차를 팔았다면, 배지를 팔았다면 더 구할 수 있었을 거라며...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절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초반의 몇 분 빼고는 흑백으로 진행되던 영화는 유대인들이 자유를 맞이하며 컬러로 바뀌게 되는데 잘 차려입은 유대인들이 쇠들러의 무덤 앞에서 그를 기리는 모습은 퍽 인상적이었다. 색이 빠져 생기도 없어 보이고, 으레 고통받는 자의 모습이었던 이들이 색깔을 입으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인 것이다. 당연히 고통받아야 하는 사람은 없음을,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함을 마지막 장면에서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쇠들러의 모습을 통해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주님이 없는 삶, 구원받지 못한 삶은 결국 사망뿐이다. 목도하는 참상이 없을 뿐 결과는 같다. 한 생명을 더 구하지 못함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쇠들러의 모습이 과연 내게도 있을까? 우리는 한 생명, 한 영혼을 향한 쇠들러의 시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7박 8일 사이판 트래블 버블 여행 느리게 넘실대는 서태평양에서 '산티아고의 바다'를 생각하다

글/사진 전영의

1

트래블 버블 상품으로 7박 8일 사이판을 여행했다. 트래블 버블이란 팬데믹 이후 방역 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여행을 허용하는 일종의 협약이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사이판과 첫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었다. CNMI 등 복잡한 서류 준비 절차와 5회의 PCR 검사, 현지 도착 후 5박 6일간의 호텔 격리가 요구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긴 했지만 사이판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태평양을 전세 내다

한 언론에서 사이판 트래블 버블 여행을 '태평양 전세 내고 천 억짜리 호텔 전세 낸 여행'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북마리아나 정부의 여행비 지원과 품격 있는 서비스, 그리고 트래블 버블 초기 붐비지 않았던 호젓한 여행 환경을 일컬은 것이다. 나는 트래블 버블 상품의 초기 여행자였으므로 그 혜택을 200% 누렸다. 7박 8일 일정의 사이판 트래블 버블 여행에는 조건이 있었다. 현지 도착 후 5박 6일 동안은 지정 숙소인 캔싱턴호텔에 묵으며 호텔 내의 부대시설만 이용할 수 있었고, 자유 여행은 돌아오는 날을 포함하여 딱 2일간만 허락됐다.

6일간의 캔싱턴호텔 전용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며 여유로운 호캉스를 즐기고, 자유 여행을 시작하는 첫 날에는 정글과 버드 아일랜드, 태평양 한국인 위령탑 공원 등의 북부를, 이튿날 오전에는 '사이판의 진주라 불리는 마나가하 섬 투어를 했다.

캔싱턴호텔의 가장 큰 매력은 에메랄드빛으로 넘실대는 서태평양을 전용 해변으로 품고 있다는 것이다. 여유롭게 넘실대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햇살이 내려앉은 각도와 양에 따라 물빛의 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다른 색을 빚어내기도 했다. 에메랄드빛인가 싶더니 어느새 코발트빛으로 바뀌고, 또 어느새 형용할 수 없는 물빛을 자아냈다. 6일 내내 그 경이로운 바다에서 살았다.



1. 5박 6일 호텔 격리를 호캉스로 느끼게 했던 캔싱턴호텔 전용 해변. 카약, 패들보드, 세일링, 스노클링 등의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만끽할 수 있다
2. 느리게 넘실대는 사이판 바다. 달려온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잠시 쉬어가라고 말하는 듯하다
3. 여행의 맛과 멋을 실려 주는 즐거운 식사
4. 지금도 원주민들 사이에 신성시되고 있는 산타루 데스 야외 성당
5. 캔싱턴호텔과 전용 해변. 제법 호젓하다. 태평양 전세 내고 천 억짜리 호텔 전세 낸 여행이란 말이 와 닿는 풍경이다



2



3



4



5

여행 마지막 날도 바다에서 여유를 즐겼다.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하루 3천 명이 찾았다는 마나가하 섬 바다를 여섯 명이 점유하고 스노클링을 했으니 말 그대로 태평양을 전세 낸 셈이었다. 카약, 패들보드, 세일링, 스노클링, 바다 수영 등 평생 해도 다 못할 물놀이를 이번 여행에서 한 듯하다.

사이판 육지 투어

5박 6일간의 격리 해제 후 사이판 육지를 여행했다.

사이판 최고봉인 타포차우산, 원주민들의 성지 산타루데스 야외 성당,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군의 공격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일본군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며 뛰어내린 만세 절벽, 해 질 무렵이면 수많은 새가 섬 주변으로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는 버드 아일랜드 등이 육지 여행의 주요 볼거리다.

또 버드 아일랜드와 얼마 안 되는 곳에 태평양 한국인 위령탑 공원이 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이곳으로 끌려온 한국인들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남북길이 22km, 동서길이 3~8km에 불과한 이 작은 섬에도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었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떠올리며

사이판에서 본 바다는 참으로 고요했다. 태평양은 5대양 중 가장 사나운 바다로 손꼽히는데 내가 사이판에 머무는 동안은 그 말이 무색하리만큼 고요했다.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서 수평선은 미동도 하지 않는 듯 조용하다.

카약을 타고 직접 노를 저어 그 고요한 물살을 가르며 배를 움직이니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생각났다. 자신의 조각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잡아 배 측면에 붙잡아 매달고 귀향하던 노인 산티아고. 그의 바다는 거칠고 격렬했다. 귀향 내내 엄청난 수의 상어 떼와 싸워야 했지만 그는 결국 승리했다. 귀향에 성공했고, 자신을 갈아먹던 '자존감 상실'의 늪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바다는 하늘을 그대로 담가 우려낸 듯한 푸르름으로 철썹철썹 시원한 웃음소리를 들려주다가도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와 닥치는 대로 삼켜 버리고, 또 밤에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고요히 흘러간다.

바다가 하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듯 우리 삶의 무대도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평생 바다로 희망을 당겼던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처럼 나도 평생 나의 삶의 무대로 희망을 당기며 여행하고, 탐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BOOK AND BOOK

정리강혜미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우다

저자 : 이재기 | 272쪽 | 15,800원 | 출판사 : 샘솟는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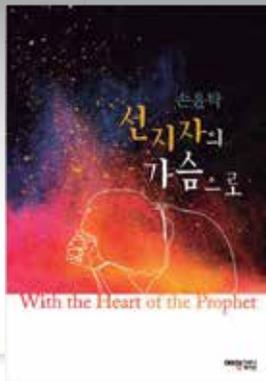
한국 교회에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핍박과 혼돈 속에서 모범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리더십은 우리가 어떤 리더여야 하는지, 성경적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적대적이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이끌어 낸 사도행전 속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리더가 새겨야 할 리더십의 핵심 가치 14가지를 제시한다. 소그룹 레슨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크리스천 리더십 교과서로 제격이다.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저자 : 레베카 맥클러플린 | 옮김 : 이여진 | 352쪽 | 18,000원 | 출판사 : 조이북스

2020 크리스챤너티 투데이 북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책으로 21세기 기독교가 직면한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종교 없이도 잘 살지 않는가? 진정한 믿음은 하나만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는가? 성경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제시하고 답변함으로써 종교는 미신이고 과학이 진리가 되는 세속화 속에서 크리스천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 준다.



선지자의 가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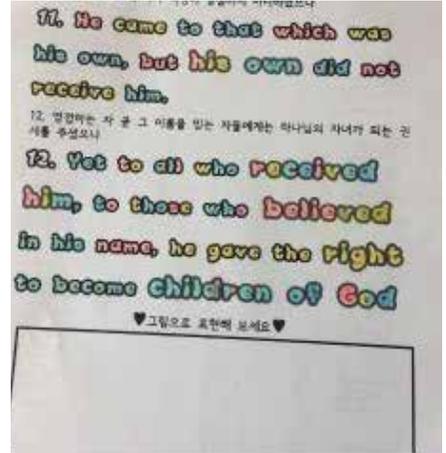
저자 : 손윤탁 | 144쪽 | 8,000원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선지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저자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삼과 그들의 외침을 일반 성도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내고 있다. 3천여 년 전의 선지자들의 외침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충분한 울림을 준다. 선지자들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한편 선지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묵상하기에 좋은 교재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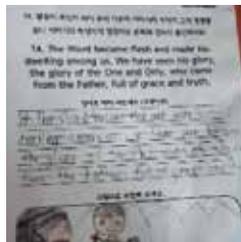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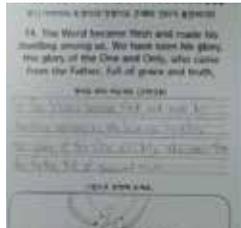
어린이영어예배부 랜선 클래스

어린이영어예배부 ZOOM 예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 주일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들기로 표현하고, 요한복음 영어 성경 필사를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어린이영어예배부!



= joseph 1반 =
P/H/O/T/O/W/O/N/D/E/R



Classy and Fabulous
No one is in charge of your happiness except you.



♥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1. 2020년

항목	대상	지출금액	합계
부활절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한국 교회 봉사단	3천만 원	5천만 원
	고양시	1천만 원	
	파주시	1천만 원	
	생계형 13가정 : 100만 원	1천300만 원	4천150만 원
	사업형 13가정 : 200만 원	2천600만 원	
	덴탈마스크 1만 장 × 250원	250만 원	
9월의 크리스마스	교회 성도 56명	8천900만 원	8천900만 원
11월의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작은교회세우기 지원금 전달)	- 고양, 파주 지역 82개 교회 - 지방지역 56개 교회 = 총 138개 교회(교회당 25만 원)	3천450만 원	3천450만 원
성탄기념 선교헌금 지원	- 서울서북노회 자립 대상 교회 83개 - 지방 돌봄 교회 17개 = 총 100개 교회(교회당 100만 원)	1억 원	1억 원
12월 연말 환우를 위한 지원	교회 성도 25가정	5천만 원	5천만 원
3억8천350만 원 / 해피월드예 1천850만 원 위탁 포함			

2. 2021년

항목	대상	지출금액	합계
부활절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 성도가 지정한 129명 - 교회가 지정한 54명의 성도		1억2천555만 8천50원
추수감사절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 성도가 지정한 303명 - 미지정 헌금(교회 선정) - 성도 103가정, 26교회 -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1억8천338만 원
3억8백93만8천50원			

3. 2020 - 2021년 지출현황

2020년	383,500,000원	합계 692,438,050 <b style="color: red;">6억9천243만8천50원
2021년	308,938,050원	

십자가의 길 크로스로드 선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는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설립하시고, 2019년 은퇴하신 정성진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 섬길 인재를 훈련하고 세워가실 목적으로 설립하신 단체로 설립 이래 한미준 세라인 스쿨을 통해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목회개척을 꿈꾸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사역 *

- 젊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개척학교
- 다음세대 목회자들의 영성과 야성을 길러 '21세기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역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세라인 스쿨

Crossroad Church-planting Center by 크로스로드

크로스로드 세미나리는 아카데미의 심화과정으로 주로 설교, 예배, 선교 등의 목회적 주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고 준비됩니다.

전문가를 위한 오프라인

S 세미나리



F 정기포럼

미래목회환경의 분석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실질적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전문가적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포럼은 비정기적 모임으로서 중요 의제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온라인

A 아카데미

크로스로드의 유튜브 채널(크로스로드TV)을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교회외 리더들에게 성서신학/ 실천신학/ 인문학/ 실용학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미래지향적 목회방향을 제시합니다.

아카데미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로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멘토링을 받고 멤버십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E 에듀살롱

지역모임/ 오프라인

C 컨퍼런스

서당 프로그램/ 오프라인

목회개척컨퍼런스와 함께 소규모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강화방식의 서당프로그램(신학서당/ 설교서당/ 목회서당)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외 교회개척 및 선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각각의 지역적/ 개인적 필요에 따른(선교사포함) 훈련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준비됩니다.

DMZ 해마루촌

통일기도의 집 사역 *

- 분단 70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입니다.
- 도적과 같이 불시에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도하는 집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비빌언덕 사역 *

-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들이 한 해에 1,000여 명이 됩니다.
- 고아를 돌보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안에서 멘토링하고 장학금과 자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기타 사역 *

- 선교사 지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등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2 WINTER
VOL.41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41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곽승현

발행일: 2022년 1월 2일

인쇄: 천광인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취재: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전영숙

사진: 연성흠

편집: 강혜미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팀장: 전영의

거룩한빛 **광성교회** 소개합니다.
 KwanGungSung 대안예수교장로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2.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와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3.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 대 비전

- 지역사회 문화중심 ● 고양파주 성시본부 ● 한국교회 개혁모델
- 북한선교 전초기지 ● 세계선교 중심센터

예배시간안내 코로나19로 예배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변경시간은 광성교회 대응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일	1 부 예배	오전 7:30	광 성 홀	교 회 교	영 아 부	1부 오전 9:00	백 합 (B1)
	2 부 예배	오전 9:00	광 성 홀		유 아 부	(영아부 1부 없음) 2부 오전 11:00	장 미 (B1)
	3 부 예배	오전 11:00	광 성 홀		유 치 부	3부 오후 12:30	진 달 래 (B1)
	4 부 예배	오후 12:30	광 성 홀		초 등 1 부		무 궁 화 (B2)
	5 부 예배 (청년부)	오후 2:30	광 성 홀		초 등 2 부		난 초 (B2)
	농인부 예배	오후 1:00	비전센터2동(2F)		초 등 3 부	1부 오전 9:00	비전센터2동(2F)
	저녁 예배	오후 8:00	온라인 가정예배		초 등 4 부	2부 오전 11:00	드림교육 3-2동
수 요	수요 예배	오전 10:30	광 성 홀	초 등 5 부		드림교육 3-1동	
	성경 대학	온라인 성경대학으로 진행됩니다			초 등 6 부		드림교육 1동
	빛가득금요기도회	오후 9:00	광 성 홀	어린이영어1부	오전 9:00	비전센터1동(2F)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00	광 성 홀	어린이영어2부	오전 11:00		
	저녁기도회(일~토)	광성홀 개인기도로 대체합니다			사 랑 어 린 이	오전 11:00	민 들 래 (B1)
	베트남	오전 11:30	비전센터 3동	사 랑 청 소 년	오전 11:00	비 전 홀 (B1)	
	외국인	오전 11:30	비전센터 3동	사 랑 청 년 1부	오전 9:00	비 전 홀 (B1)	
영어 예배	오후 1:00	드림교육 1동	사 랑 청 년 2부	오전 9:00	비전센터 3동		
주 일 영 상 예 배	2/3부 [4층그라운드홀]			중 등 부	오전 9:00	지저스아트홀	
	3/4부 [지저스아트홀]			고 등 부	오전 9:00	드림교육 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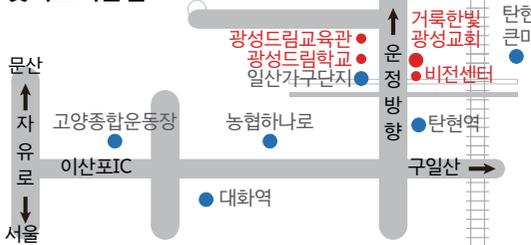
교육안내 코로나19로 교육훈련 조정이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광성교회 대응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교육	주 일 오전 11:45	비 전 홀	생 활 신 앙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주 일 오후 1:15			주 일 오후 2:00	
알 파 코스	화요일 오전 10:00	비 전 홀	성 경 대 학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주 일 오후 3:30			수요일 오후 7:30	
일대일 제자양육	매 일			주 일 오후 2:00	
노 아 스 쿨	목요일 오전 10:00	비 전 홀	수 요 목 자 모 임	수요일 오전 9:40	해당교육실

봉사기관안내

장터사회적협동조합	921-0691	작은교회전도지원센터	929-3393	사회복지법인해피월드	915-8817
광성평생교육원	929-3352	천 사 가 게	911-2923	파 주 소 인 복 지 관	943-0730
복 카 페	929-3311	쿤 치 유 센 터	929-3343	문산종합사회복지관	934-2000
지 혜 모 아	929-3354	두 드 림	929-3330	덕양노인종합복지관	969-7781
만 나 와 메 추 라 기	929-3340	한 나 래 유 치 원	917-0551	원당종합사회복지관	966-4007
상 담 실	929-3333	광 성 드 림 학 교	929-95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8-9801
아 름 머 리 방	929-3344	해 피 뱅 크	924-8815	새꿈터지역아동센터	911-0611
올 리 브 향 기	929-3388	해 피 천 사	918-7004	심 리 상 담 소	929-3370

찾아오시는길



교통편 안내

- 자가용
 자유로 이산포 IC 진입 → 고양종합운동장 (직진)
 → 이마트 사거리 (좌회전 후 금촌방향 1Km 직진)
 → 교회
- 대중교통 (대화역 4번출구 버스승차, 송산동 하차)
 일반버스: 56, 80, 567, 600, 773, 900
 좌석버스: 1500, 2000, 3000, 5000

광승원 위임목사 CBS 설교방송 매주 (월) 오후 7:00 KT (238), LG U+ (270), SK Btv (300), SkyLife (182)
 365일 24시간 위기상담 전화상담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 청소년 자살예방상담전화 : 1388
 아동·청소년·성인·부부 전문심리상담 심리 상담 소 : 929-3370 (예약필수, 유료상담)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사역총괄	문상원목사
● 교구관리	차광욱목사
1교구(제2교육)	주용진목사
2교구(예배)	이석희목사
3교구(교구사역)	최종운목사
4교구(세계선교)	김은찬목사
5교구(중보기도)	박석순목사
6교구(전도)	김만석목사
7교구(차량)	최병화목사
8교구(통일선교, 제3교육)	문상원목사
9교구(선임기획행정)	나형빈목사
10교구(사회선교)	김중민목사
11교구(국내선교봉사경직)	김현준목사
12교구(제2찬양, 가정)	이일현목사
새가족교구(스포츠, 회복사역)	송화준목사
유 학	김수경목사
안 식 년	
● 행정	김 환 전 도 사
행 정 사 역	김민석목사
목 회 비 서	최성직목사
사 무 장	전정희사무장
영 상	연광홍실장
	박유하간사
음 재 행 관 리 사 무	김진영간사
	최민선간사
	한수영간사
	정성수장로
● 교 육	한요한목사
제 1 교 육 (교회학교)	
영 아 부	김수진전도사
유 치 부	박주은전도사
초 등 1 부	홍요한전도사
초 등 2 부	김시란전도사
초 등 3 부	방성빈전도사
초 등 4 부	이재성전도사
초 등 5 부	이재광전도사
초 등 6 부	유현애전도사
어 린 이 영 어	김은하목사
중 등 부	최성직목사
	엄유현전도사
	김 환 전 도 사
	신연섭전도사
제 2 교 육	차광욱목사
청 년 부	최재욱목사
	차선우전도사
	박정훈목사
	박진주전도사
조이플장년부	차광욱목사
제 3 교 육	최병화목사
노 아 스 쿨	한요한목사
장 애 인 사 역 (사 랑 부)	박정훈목사
사 랑 어 린 이	박정우전도사
사 랑 청 소 년	사순심목사
사 랑 청 년 1 부	김진성전도사
사 랑 청 년 2 부	
● 선교 및 예배	최종운목사
세 계 선 교	나형빈목사
사 회 선 교	김중민목사
국 내 선 교	윤성로목사
광 성 영	황경희선교사
태 남	윤앤베전도사
통 일 인	노옥실목사
상 담	이대설전도사
전 도	이소영목사
	박석순목사
	김용남전도사
제 1 찬 양	박성택목사
제 2 찬 양	김현준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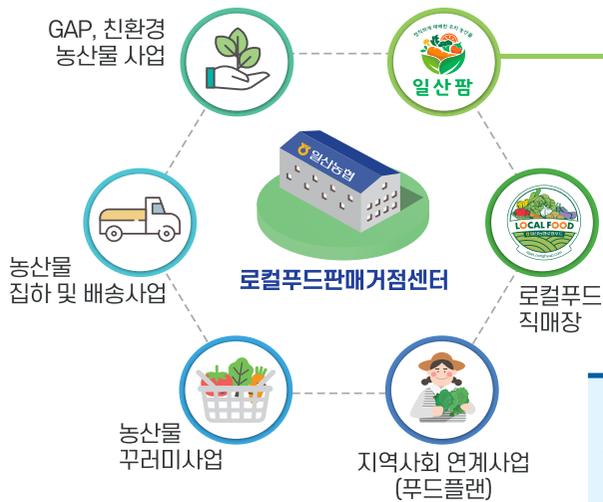
일산농협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2021년 11월 공사시작

농산물 유통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일산농협을 만들겠습니다.

2022월 10월,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일산팜」

일산팜은 일산농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안심 농산물 브랜드 입니다. (상표권 등록)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을
2022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www.ilsanfarm.com)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개요

건축개요

- 1) 건축면적 : 4,896.98㎡
- 2) 대지면적 : 6차선 확장 및 진입 도로 포함 11,503㎡
- 3) 용 도 : 판매시설
- 4) 대지위치 : 장항동 565-5 외 3필지



- 본 점 031)975-80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 풍산지점 031)906-3234 ■ 산들지점 031)977-6540 ■ 마두역지점 031)903-6251 ■ 자유로지점 031)906-8161 ■ 양지지점 031)922-4331 ■ 강촌지점 031)932-8061
- 정발산역지점 031)908-8061 ■ 백석역지점 031)904-8061 ■ 탄현지점 031)912-8061 ■ 풍동지점 031)907-8071 ■ 탄현북지점 031)916-8061 ■ 풍산역지점 031)977-8062
- 킨텍스역지점 031)918-8061 ■ 영농지원센터 031)907-0252 ■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031)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 풍산점 031)906-3666
- 로컬푸드 일산점 031)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 031)907-8161 ■ 로컬푸드 킨텍스역점 031)918-8161 ■ 로컬푸드-APC 추진사업소 031)907-8161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031)975-8701